

전주 덕진공원 호수, 수질 문제 해결 가시화

전북지방환경청 '전주천(조경천) 합류부 개선사업'으로 전주천 용수 유입 통한 수원 확보 물꼬

전주의 대표관광지인 덕진공원 호수의 수질 환경이 개선된다. 덕진공원 호수는 그동안 주변 환경의 도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수원이 부족해 퇴적물이 쌓이고 수질이 나빠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북지방환경청과의 협력을 통한 전주천 합류부 개선사업으로 유입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서 수원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수질 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덕진공원 호수의 담수량은 약 22만3141㎥로, 호소수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일 최

소 7500톤의 용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준비해온 '전주천(조경천) 합류부 개선사업'에 하천유지용수를 덕진공원 호수까지 유입시키는 계획을 포함시켜 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으며, 그 결과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덕진공원 호수의 홍수저류기능을 갖추고 하천수를 조경천에 이어 호수로 유입하게 되면 호수와 하천의 생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은 해당 공사구간(전주천~조경천~덕진호수, 동물원삼거리)의 교통량이 매우 많은 만큼 시공 기술과 교통 통제 방안, 관련법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일 평균 7500톤의 용수가 유입되면 덕진공원 호수 수원 확보를 통해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선사업에 포함된 조경천과 인근지역 정비가 진행될 경우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는 안정적인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 동안 약 4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호수 서쪽 구간의 수질 및 오염원을 분석해 현장에 맞는 수질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 개선이 이뤄지면 수온이 높아져 녹조가 발생하는 여름철과 오염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집중호우 기간 등 수질이 악화되는 시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청년 맞춤형 플랫폼 '새단장'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 정보 접근성 강화 개편

전주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인 '청정지대'(www.jonju.go.kr/youth)를 새롭게 단장하여 29일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정지대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청년정책 정보 제공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방문자 수가 2020년 12만 명에서 지난해 30여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불편함을 겪고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또 실제 이용자인 청년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이 어려워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운영 성과와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 소통·참여의 장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편 내용은 △청년 일자리 채용 정보 연계 서비스 강화 △청년인재 DB, 정책 제안 등 참여·소통 확대 △청년층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약장 안내 시스템 구축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 등이다.

먼저 시는 청년 일자리(민간·공공) 채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연동해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청정지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연결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인재DB 구축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행사 등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시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제안'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다른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공감해 표시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시는 제안된 정책을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통해 청년과 행정 간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예약장 정보를 별도 카테고리 신설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다. 각 예약장에 대한 이용 방법부터 특징까지 상세히 담아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메뉴를 직관적으로 정비했으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유관기관의 누리집들을 플랫폼에 한데 모아 청년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이탈리아 피렌체, '자매도시' 격상 시동

윤동욱 부시장, 피렌체 방문 공식 제안·협력방안 논의

전주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 이탈리아 피렌체와 우호 결연 20주년을 앞두고, 양 도시 간의 관계를 '자매도시'로 격상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방문단은 지난 24일, 르네상스 발상지이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도시인 피렌체를 방문하여 우호 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날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피렌체 시장을 방문해 파올라 갈가니(Paola Galgani) 피렌체 부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오는 2027년 우호 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양 도시 관계를 '자매도시'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전주 한지와 피렌체 가죽 등 전통 공예 기술 교류, 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드 개발 등 △문화 △진흥공공 △관광 △정책 △민간교류 등 5대 중점 협력 분야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방문단은 지난 24일, 르네상스 발상지이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도시인 피렌체를 방문하여 우호 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외교 활동을 펼쳤다.

를 설명하며, 상호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파올라 갈가니 피렌체 부시장은 △음식 △소리(K-POP) △영화 등 다양한 문화의 접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 도시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방문단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문화유산복원기관인 OPD(Opificio delle Pietre Dure)와 피렌체 수공예 박물관

회를 주관하는 피에라(Firenze Fiera)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은 전주시의 전통문화 복원 기술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 등 향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방문단은 25일 국제 수공예 박물관(MIDA)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사라 푸나로(Sara Funaro) 피렌체 시장과 조우했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앞서 23일에는 로마를 방문해 주이탈리아 한국 대사관 김준구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과 면담을 가졌으며, 박용주 이탈리아 한인회장을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이탈리아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피렌체와의 교류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준구 대사는 "전주시는 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서 깊은 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미식의 도시"라며 "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피렌체와 전주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양국 도시 외교에 있어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양 도시의 교류 20주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의 가교 역할 및 외교적 소통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내년이면 우호 협력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앞두고, 이번 피렌체 방문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도시인 피렌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와 르네상스 중심지인 피렌체와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여 전주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5월 14일 진행

전주시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청·장년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제2회 청·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채용 담당자와 55세 이하 취업 희망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면접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채용행사는 △파인로그 주식회사 △(주)한우물 △프론트그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구에프에스 등이 참여해, 식품 생산직과 소풍물 택배배출비행, 자동차 부품 조립원 등 다양한 직무에서 인력을 모집하게 된다.

시는 구직자 사전 접수를 통해 구직자에게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지

원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사전 매칭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효율적인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전주시 일자리센터(063-281-2813)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50+ 어른학교' 수강생 모집

전주시가 올해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 세대의 새로운 배움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2026년 인생후반기 50+ 플랫폼, 지금 시작하는 50+ 어른학교 시즌1'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50+ 어른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64세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취미 교육을 넘어 진로 탐색과 커뮤니티 형성,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일·활동 탐색 과정 △일상 기술 과정 △커뮤니티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정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평생학습관과 전주대 자유관, 전주 인근 숲 등에서 운영되며, 과정별 모집 인원은 10명에서 20명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50+ 세대는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e.jonju.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되며, 7월 개강 과정의 경우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별도 접수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로 개강일에 납부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

